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

고은아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장)

코로나 감염병기간 방과후 학교는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방식이 바뀌며 진행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진행된지 3년째인 현재도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의 중요성만큼이나 또래, 선후배, 선생님과 관계 형성에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경제적측면에서 돌봄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이전부터의 방과후학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의 경제적인 기능과 학교 수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적 측면의 기능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초등 방과후학교는 이렇듯 돌봄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재 방과후학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1. 소수 신청 프로그램 개설의 제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발전된 부분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학교에서 정해진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교육 절감 측면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측면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설문으로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여기서 반영과 개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방과후 강사는 수업 운영을 위해 최소 10인이상 신청시 개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인정되고 있지않아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평가의 비효율성

학교 수업에서는 교원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평가 후 환류가 되어 피드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 평가에 대한 관리는 학부모 영향 밖인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히 평가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학부모 자부담금이 수업에 대한 비용으로 직접 지불되고 있으며 방과후 강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도 없기때문에(행정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학부모가 느끼는 부분에서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와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과후학교는 수요자들의 요

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평가는 공개수업을 통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평가 설문에서 점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수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수업일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평가 설문 역시 형식적이어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기 힘듭니다.

초등저학년 경우 학부모들은 돌봄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평가에서 출석체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학교하지는 않은지 친구들과 외부에서 놀고 있지는 않은지... 등.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설문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요소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어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방과후학교 소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비활성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한편 중고등학교는 프로그램이 몇 개 개설되지도 않고 개설되더라도 신청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교후 많은 아이들이 국영수 사교육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 자리잡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어느 학교에서는 인근 유명 국영수학원 강사들을 섭외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서도 국영수만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올바른 상황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회는 4차산업혁명을 향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분야는 국영수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방과후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학부모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소수 학생들의 니즈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수 인원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강이 폐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 강사들의 수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한다면 소수 인원으로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소규모 수업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직접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있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활성화로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 규정마다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구성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학부모위원이 꼭 구성되어야 하며 초등학교 경우 각 학년마다 학부모위원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고학년 학부모는 저학년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렵고 저학년 학부모는 고학년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려우며 학부모들의 필요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강사 채용 면접에 꼭 참여하여 전체 학생과 학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면접 질문을 통해서 잘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활성화로 연결되고 결국 민주적인 학교자치 문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방과후강사에 대한 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과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진로와 연계한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로부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학원을 좀 덜 다닐테고 그래야 다른 재미있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면 앞서 말한 소규모 방과후학교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진로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고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도 많기 때문에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는 경기꿈의학교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결한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수업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에게나 학생에게나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수 수강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활성화, 진로와 연계한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민주적인 학교자치가 꼭 실현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